

지역 매아리

정읍시, 규제홍보리플릿 배포

정읍시(시장 유진섭)는 규제개혁 홍보물 4천부를 자체 제작해 시민들의 방문이 많은 관내 23개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 지역 내 기업체 등에 배포했다.

시민들이 규제에 의해 생활에서 겪는 애로사항과 중·소상공인의 기업경영 활동에 어려움을 주는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발굴 개선하기 위함이다.

홍보물에는 행정규제의 의의, 규제혁신 중점사항, 규제건의 처리절차, 규제신고 센터 연락처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생활 속에서 체감하는 규제를 신속하게 신고 할 수 있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미래 신산업 성장을 저해하는 규제, 일자리 창출을 저해하는 규제, 국민불편과 민생부담을 야기하는 규제를 중점적으로 발굴 혁신할 계획이며, 발굴된 규제의 중앙부처 건의는 물론 자체 해결 가능한 규제는 자치법규 개정을 통해 과감히 개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규제개혁 홍보물 배부를 계기로 규제개혁 신고센터가 더욱 활성화 되길 바라며,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기자

정읍시농업기술센터

고구마 실증시험 평가회 가져

정읍시농업기술센터(소장 문재권, 이하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최근 청사 내 강의실에서 고구마 국내육성 품종 3종과 도입품종 3종에 대한 실증시험 평가회를 가졌다.

회의에는 관내 고구마 재배농가와 고구마 연구회원 30여명이 참석하였으며, 덩굴쪼김병 경감을 위한 방법과 칼리염 면시비 효과 및 만기재배 시 수확량 품종별 비교 분석 등을 밝히는 자리가 되었다.

덩굴쪼김병은 고구마순의 물관과 체관 이 균에 의해 막혀 양분과 수분이 더 이상 전달 되지 않아, 잎이 누렇게 변하면서 줄기가 갈라져 결국에는 말라죽게 된다. 외부에서 관찰 시에는 영양결핍이나 생리장애로 오인하기 쉽다. 또한 한 번 발생한 포장에서는 토양전염에 의해 다음해에도 발생되는 경우가 많고, 한번 발생된 묘는 치료가 되지 않아 농가에 막대한 손해를 끼치는 주요인이다.

칼리는 고구마의 비대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뿌리의 형성중 활동을 증대시키고 광합성 능력을 높여 덩이뿌리의 형성과 비대를 촉진한다.

또한 농업기술센터는 고구마를 이용한 말랭이와 칩을 전시하여 가공적성에 맞는 품종에 대한 정보 제공과 가공활용 방안에 대해서도 모색해 보는 자리를 가졌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 고속도로 안전사고 예방한다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 부안휴게소 건립 설계용역비 내년 반영 약속

서해안고속도로로 부안휴게소 건립 설계용역비가 내년도 예산에 확보될 전망이다.

서해안고속도로가 지난 2001년에 개통되면서 고창과 군산에는 휴게소를 건립해 현재까지 운영 중에 있으나 부안군에는 당시 주산면 덕립리 일원에 휴게소 부지만 조성하고 교량 부속 등으로 경제성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휴게소 건립을 연기해 현재 임시 주차장으로 운영 중이다.

그러나 현재 시대적인 변화 및 지속적인 관광객의 증가 등으로 매년 교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운전자의 안전과 배려를 위해 휴게소의 건립이 필요하고 더욱이 부안군은 고속도로 인접 휴게소와의 간격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구간(67km)으로 피로누적 및 졸음운전 등으로 운전자의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권익현 부안군수는 지난 24일 한국도로공사를 직접 방문해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을 만나 2019년도에 휴게소 건립을 위한 기본 및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사진 왼쪽)과 권익현 부안군수.

실시설계용역비 반영을 건의했다. 부안군은 교통 안전사고 위험 감소와 함께 2023년 제25회 세계잼버리로 인해 전 세계 168개국 5만여명의 참가자와 관광객 4만여명 등 총 9만여 명이 부안을 방문할 것으로 휴게소 건립을 통해 교통편의를 제공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여 대외의 성공 개최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은 부안휴게소의 건립 필요성을 인정하고 내년도 설계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계획대로 사업이 진행 될 경우 부안휴게소는 오는 2021년 연말에 완공돼 매출액 50억원, 고용창출 200여명, 지역특산물 판매 및 홍보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부안=이옥수 기자

“치매환자 이해하고 응원하는 동반자 역할 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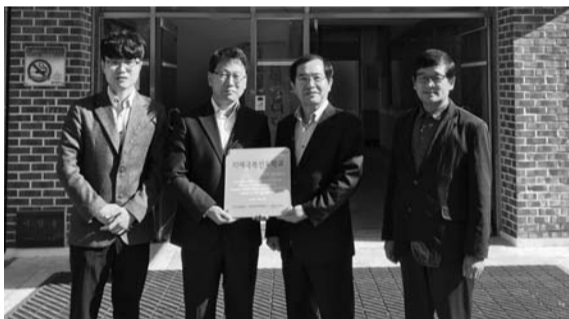
정읍시보건소 치매안심센터, 신태인중 치매극복선도학교로 지정

정읍시보건소 치매안심센터는 중앙치매센터 및 전북광역치매센터와 함께 25일 신태인중학교를 치매극복선도학교로 지정하고 현판식을 가졌다.

이는 가정과 사회에서 치매환자와 가족들을 이해하고 응원하는 동반자 역할을 확산하고자 마련된 자리였다.

치매극복선도학교 지정 사업은 지역 내 교육기관인 초·중·고등학교, 대학생들에게 치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고 학생들과 교직원들에게 치매에 대한 이해를 넓혀 치매환자와 가족을 이해하도록 돕는 사업이다.

신태인 중학교의 치매극복선도학교 지정으로 학생들은 치매에 대한 이해와 지식을 갖추어 가정과 이웃의 어르신들에게 치매 조기검진을 독려하고 주변의 치매 어르신들에 대한 보다 넓은 이해와 배려에 앞장설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생활습관형성 시기에 있는 청소년들에게는 건강한 치



정읍시보건소 치매안심센터가 중앙치매센터 및 전북광역치매센터와 함께 25일 신태인중학교를 치매극복선도학교로 지정하고 현판식을 가졌다.

매예방 생활습관을 갖추게 하여 치매로부터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치매 친화적 사회 조성의 든든한 지원군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문상용 보건소장은 “치매는 지역사회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하는 모두의 과제이며, 정읍시의 더 많은 학교가 치매파트너 양성과 치매인식개선 활동에 적극 참여

하여 치매를 이해하고 치매어르신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치매에 대한 궁금한 사항과 도움에 대한 문의는 정읍시보건소 치매안심센터(063-539-6767) 및 중앙치매센터(1899-9988)로 문의하면 된다.

/정읍=김대환기자

고창군, 갯벌생태지구 조성사업 준공식 열어

서해안권 대표 관광 명소화 기대

고창군(군수 유기상)이 25일 '고창 세계프리미엄 갯벌생태지구 조성사업' 준공식을 갖고 새로운 서해안권 대표 갯벌생태관광 명소로 자리매김 할 준비를 마쳤다.

'고창 세계프리미엄 갯벌생태지구 조성사업'은 지난 2010년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발전 특별법」에 의해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는 '서해안 권개발 시범사업'으로 선정되어 심원면 고진·만돌·두어·월산·하전리 일원에 2013년부터 2018년까지 6년간 총사업비 249억원을 투입했다.

이를 통해 갯벌탐방로 14km, 해상 순길탐방로 0.8km와, 교량 2개소, 탐방객 및 자전거 쉼터 6개소, 오토캠핑장 41면, 친환경주차장 203면, 공중화장실 1개소, 물놀이조합놀이대와 쭈꾸미조합놀이대, 족구장 및 농구장

등 체육시설과 모과나무 외 41종 9만 6560여주의 다양한 관목·교목·초화류 등을 혼합식재하여 계절의 변화를 느낄 수 있는 자연생태학습장을 조성했다.

또한, 올해 말 준공예정인 '두어마을 어촌 6차 시범사업'과 내년 준공을 앞둔 '고창 갯벌식물원 조성사업'을 비롯해서 2021년 까지 완료예정으로 현재 진행 중인 민들레갯벌 시범사업도 연계하여 갯벌생태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주민교육과 홍보사업, 마을 농수산물 판매활동도 활발하게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군은 명품 갯벌생태지구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먹거리·체험거리와 힐링체험을 할 수 있는 캠핑공간을 제공하여 주민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이라는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계획이다.

/고창=김영식기자

정읍시, '내장산 단풍철 농특산물 홍보판매장' 운영

정읍시는 단풍철을 맞아 내장산에 농특산물 홍보판매장을 11월 11일까지 내장산 만남의 광장 일원에서 운영한다.

이번 판매장 운영은 가을철 내장산의 빼어난 자연경관을 보기위해 전국 각지에서 모여드는 관광객에게 정읍시의 우수 농특산물을 홍보하고,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위해 시에서는 지난 9월부터 책임지고 운영 할 관내 농업법인과 가공업체, 유통단체 등의 협조를 받아

단풍미인 소풍볼 협의회, 정읍구절초 향토사업단 등 8개의 책임 있는 업체를 선정하여 운영에 들어가고 있다. 이들 업체들은 우리 지역에서 생산·가공 된 농특산물만 판매하며, 소비자를 위한 소포장 위주 판매, 상거래 질서 확립위한 원산지표시와 가격표를 게시한다.

판매장에서는 단풍미인쌀, 단풍미인한우, 구절초 상품, 장아찌, 사과, 배, 단감 등 80여개 품목에 대한 판매와 시음·시식을 실시한다.

/정읍=김대환기자

고창군, 겨울철 자연재난 사전대비 태세 '돌입'

고창군(군수 유기상)이 폭설 등 겨울철 자연재난으로 군민의 안전 및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11월 14일까지 사전대비 기간으로 설정해 예방활동에 총력을 다한다고 25일 밝혔다.

군은 겨울철 자연재난에 내실 있게 대비하기 위해 고립예상지역과 해안가 위험지역을 전수조사하고 관리책임자를 지정·운영하는 한편, 비닐하우스 시설과 수산·양식시설 주민을 대상으로 신속한 상황전파를 위한 관련 분야별 비상연락 체계를 정비할 계획이다.

또한 도로 제설대책 추진상황실을 운영해 372.9km 노선에 대한 제설 담당책임자를 시행하고 제설 자재·장비 점검과 폭설시 제설장비와 인력을 현장에 전진 배치한다.

특히,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출·퇴근 시간대에 읍면 주요도로에 대해서 우선 제설작업을 실시하고 유사 시 민간군이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제설작업을 확대하기로 했다.

겨울철 자연재난의 선제적 상황관리를 위해 대설예보 시 상황관단회의를 개최해 초기 대응체제를 강화하고 사전에 제설장비와 인력 현장배치 등 피해예방을 위한 분야별 현장 대응을 강화한다.

아울러 한파 발효기간 동안 상수도 동파 등 주민생활불편에 대비해 한파 대책종합지원상황실을 설치해 24시간 비상근무체제를 유지하게 된다.

한편, 폭설과 관련된 정보는 마을방송, 재난문자, 전광판 등을 활용해 신속하게 상황을 전파하고, 지역자율방재단 등 민간단체가 주도하여 폭설대비 군민행동요령을 적극 홍보하기로 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Mulberry Wine
You can now enjoy the wild ginseng that you dreamed of!
Gangsanmyeongju's Mulberry Wine.

청와대 만찬주!
부안강산뽕주
선택했습니다.

부안강산뽕주 GIFT SET

청와대에서 즐기는 만찬주!
부안강산뽕주와 함께 오디주의 **맛**을 느껴보세요.

오천년 민족의 격조높은 기쁨을 오디 넉넉히 넣고 정성스레 빚어내어 부드럽고 오묘한 맛에 뒤끝이 깔끔함을 한병 술로 빚었습니다. 부안의 변산반도 청정해역의 해풍을 맞으며 영글어져 타 지역보다 당도와 질이 아주 탁월 합니다. 이 질 좋은 오디만을 선별하여 직접 생산 농가로부터 다량 구매하여 군민 소득 증대 사업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GIFT SET 1호 | 750ml 2ea, 잔 2ea/16% | GIFT SET 2호 | 750ml 2ea, 잔 1ea, 오프너/12% | GIFT SET 3호 | 750ml 1ea/12% | GIFT SET 4호 | 500ml 2ea, 잔 2ea/12% | GIFT SET 5호 | 375ml 5ea/13% | GIFT SET 6호 | 500ml 장병2ea/12%, 복분자1ea/13%, 잔 1ea, 오프너 | GIFT SET 7호 | 375ml 2ea/13%

부안강산 뽕주
Premium Otdi Wine

TEL : 063-584-9960
www.gangsanwine.com